

2018년 EAACI congress를 다녀와서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호흡기분과

전임의 정민영

2018년 EAACI (European Academ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congress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AAAAI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이후 두 번째 해외 알레르기 학회였습니다. 1년 전보다는 알레르기질환에서 임상과 연구 경험도 조금은 더 쌓였기 때문에, 학회에서 듣는 주제같은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poster discussion section에서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원내에서 시행하는 medical presentation 강의도 들으면서 해외 연구자들 앞에서 연구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뮌헨은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최대의 도시이자,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유럽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구단 바이에른 뮌헨과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축제 옥토퍼페스트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으로 여름에도 기온이 23도 넘지 않고 겨울에도 영하 3도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5월의 뮌헨은 덥지도 않고 선선한 날씨인데다가,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서울을 떠나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학회장은 Messe에 위치한 Internationales Congress Center München이었는데 규모도 큰 데다가 바로 앞에 큰 호수를 둘러싼 작은 공원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숙소가 학회장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시내를 다녀오는 길이기도 해서 매일 저녁 호수를 한두 바퀴씩 돌며 여유를 만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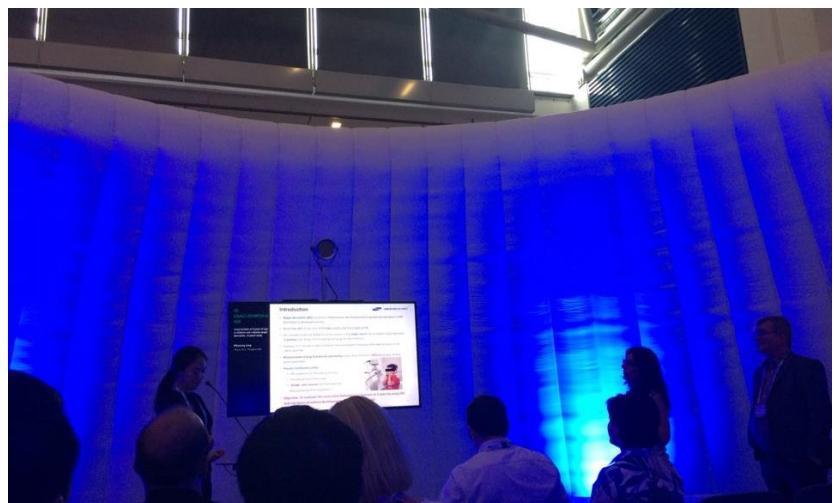


Internationales Congress Center München 앞 호수에서

관심 있게 들었던 분야는 food allergy prevention과 immunotherapy, allergic skin inflammation, phenotype and prevention of asthma 등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들이 직접 하시는 강의들이 많은데 겹치는 시간들도 꽤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학회장 내에 놓쳤던 session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및 서비스도 있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듣기도 하였습니다. 동영상 cast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session은 “molecular allergology in food allergy” 주제였습니다.

아침마다 열리는 plenary session은 유명하신 석학들이 강의를 하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tolerance와 sensitisation이라는 주제를 들었었는데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이고, 인위적으로 아직 tolerance를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Year in review는 dermatology를 들었는데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Allergy, Clinical & Experimental Allergy 의 각 editor in chief가 나와서 직접 리뷰를 하였고,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에서 피부 벽의 기능과 그 구성분인 단백질과 지질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 이 병태 전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예방과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prevention of food allergy 심포지움에서 현재까지 나와있는 LEAT, EAT, PETIT study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combined analysis를 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수분해 분유가 allergic disease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evidence를 제시하기도 하여 흥미로웠습니다. 이토록 지구 건너편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며 자극을 받게 되었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항상 update된 지식으로 겸손하게 공부하고 진료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oster discussion session은 각 주제별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을 학회에서 선정하여 발표자가 발표하고 해당 주제를 연구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discussion 하는 자리입니다. “Risk factor for allergic disease”라는 주제의 session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유럽 중환자 학회에서 구연 후 질문에 대답을 잘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예상했던 질문이 나와서 순조롭게 마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연구들도 하나하나 다 재미있었는데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micronized cellulose powder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한 환자에게는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Poster discussion session에서 발표하는 모습

Poster discussion session에서 발표하는 모습

이번 학회에서 알레르기 면역학의 최신 연구 경향을 공부하고, 세계 저명한 인사의 강의도 들으며 연구 결과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름다운 뮌헨과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며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삼성서울병원 안강모 교수님과,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 힘차게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